

‘제43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은 SBS 품으로!

‘KF-X 관련 보도’, 뉴스로는 사상 최초 대상 수상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단독 보도 및 KF-X 사업 관련 연속 보도’ 이경원 기자

9월 2일(금) 열린 한국방송협회 주최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 김태훈, 이경원 기자가 보도한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단독 보도 및 KF-X 사업 관련 연속 보도’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SBS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1991년 개국 이래 제27회 <생명의 기적>(2000년), 제39회 <뿌리 깊은 나무>(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보도가 대상을 받은 것은 방송대상 43년의 역사에서도 드문 일로, 기획 보도 프로그램도 아닌 스트레이트 뉴스가 대상을 받은 것은 최초의 일이다. 해당 보도는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사실을 단독 보도하는 등 KF-X 사업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심사위원들은 SBS의 보도가 KF-X 사업의 부실을 조기에 밝혀내 대

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여론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여의도 KBS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방송대상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하며 대상을 받은 이경원 기자는 “KF-X 보도가 사실 우리가 치열하게 추적해서 취재한 결과물은 아니었다.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돼버렸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까, 이게 과연 이야기가 될까 고민했는데 결과는 판판이었다. 이 상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영예이기도 하지만 시청자 알리지 말라는, 자만하지 말라는 반성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게 중심 잡고 기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훈, 이경원 두 기자는 이 보도로 작년 9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2015 한국방송기자대상’(뉴스부문)을 수상했다. 김태훈 기자는 한국방송기자클럽 ‘2015 올해의 방송기자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육룡이 나르샤>(극본: 김영현, 박상연/연출: 신경수)가 장편드라마TV 부문 작품상을 차지했으며, 러브FM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연출: 류철민)가 연예오락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차지했다. 또 안정식 기자가 보도기자 부문 개인상을, 안성준 기술인프라팀장이 기술진흥 부문 개인상을 받았다.

한국방송대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방송시상식이며 1년 동안 지상파 방송을 빛낸 수많은 시사, 보도, 드라마, 교양,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했던 작품과 방송인을 발표한다. 올해는 250여 편이 접수돼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 1편, 작품상 26편, 개인상 19명이 선정됐다.



<육룡이 나르샤> 신경수 PD



<언니네 라디오>류철민 PD



보도기자 부문 안정식 기자



기술진흥 부문 안성준 팀장

수상 후기

아이템 ‘킬’ 당하고 취재파일에 올린 기사가 일으킨 후폭풍

-김태훈 기자(HR팀부 국외연수)



한국형 전투기 KF-X 기술이전 거부 파문 보도가 방송대상을 수상한 것은 온몸의 힘을 빼고 배트를 휘둘렀더니 장외 홈런으로 이어진 격이다. 애초에 특종, 큰 상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이런 사실이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 인터넷 취재파일을 썼을 뿐...

작년 9월 17일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미국이 KF-X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최종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방위 위원들, 국감 현장을 지킨 기자들의 관심 밖이었다. 4

가지 핵심기술을 이전 받지 못하면 KF-X를 2026년까지 개발하고 이후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최초 반응은 그랬다. 우리 <8뉴스>도 KF-X 기술이전 아이템을 ‘킬’ 하는 바람에 국방부를 출입하는 타사 기자들에게

4가지 핵심기술을 설명하며 기사 쓰기를 독려했지만 허사였다. 마지막 수단으로 취재파일을 썼는데 예상과 달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KF-X는 작년 하반기 최대 정치안보 이슈가 돼 버렸다.

일련의 KF-X 기술이전 거부 파문 보도는 국방부와 공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기관을 아프게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이곳저곳에 ‘누’를 끼쳤다. 하지만 밀실에서 대책 없이 첩바퀴만 돌았을 KF-X 사업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KF-X 사업 가속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와 국방부, 방사청에는 KF-X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생겼다.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다. 적지 않은 보람이다. 분에 넘치는 큰 상까지 따라 왔으니 개인적으로는 감당 못할 영광이다. 더불어 시청자와 독자들의 날카로운 눈에 새삼 고개 숙이게 됐다.

추석특집 · 파일럿 / 특선영화 / 스페셜 방송 시청률 1위...3관왕 달성

신선한 포맷, 뛰어난 섭외력, 전략적 편성으로 추석 안방 접수



추석 연휴 지상파 3사가 자존심을 걸고 맞붙은 시청률 대전에서 SBS가 3관왕을 차지했다. SBS 추석특집 <정글의 법칙 48시간 with 김상중> 2부는 3사 특집과 파일럿 통틀어 1위에 올랐으며, 영화 <암살>이 특선영화 가운데 1위를, <미운 우리 새끼 스페셜>이 스페셜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9월 15일(목) 방송된 추석특집 <정글의 법칙 48시간 with 김상중>(연출: 김진호)은 잘 만든 포맷 하나가 여러 스핀 오프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제작진이 삼고초려 끝에 섭외했다는 김상중은 그 값어치를 톡톡히 해냈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다운 상남자 포스와 야재 개그를 남발하는 귀여운 모습은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시청률은 1부 5.7%에서 2부 10.5%(이하 닐슨코리아/수도권)로 치솟으며 추석 연휴 특집 · 파일럿 프로그램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영화 시청 니즈가 많은 연휴 막바지인 17일(토) 방송된 영화 <암살>은 1, 2부 통합시청률 15.9%를 기록, 같은 시간에 맞붙은 KBS2의 <내부자들>(11.4%)을 가볍게 따돌

리고 추석 연휴 지상파 3사의 10여 개 영화특선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금요일 밤의 최강자 <미운 우리 새끼>(연출: 곽승영)는 16일(금) 오전시간대 스페셜 방송으로 편성해도 여전히 콘텐츠 파워를 과시했다. 3부 11.2%, 평균 9.5%의 높은 시청률로 모든 스페셜 방송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밖에도 SBS가 준비한 파일럿과 특집이 색다른 포맷과 캐스팅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6일(금) 방송된 파일럿 <노래 부르는 스타-부르스타>(연출: 서혜진, 조문주/이하 부르스타)는 화제성 면에서 최고였다. 예능에서 좀체 보기 힘든 이영애가 차 안에서의 짧은 보컬 레슨을 통해 서툰 노래 실력을 향상시키고, 전원주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평범한 주부로서의 일상을 공개한 <부르스타>는 많은 화제를 뿌리며 다음날까지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됐다. 노래를 통해 스타를 알아가는 신개념 예능 버라이어티 <부르스타>는 밤 11시 20분이라는 늦은 시간에 방송됐음에도 1부 6.3%, 2부 8.7%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같은 날 방송된 파일럿 <드라마게임-퀵스틸러>(연출: 황인영)는 3사 연휴 프로그램 중 최대의 수확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얻으며 집중 조명을 받았다. <드라마게임-퀵스틸러>는 대본대로 연기하는 배우와 즉흥 연기를 하는 배우가 연기 대결을 펼쳐 최고를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박해미, 황석정, 김정태, 김신영, 오광록, 정준하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서로의 우승을 저지하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다. 상대 배우의 뛰어난 연기에 당황하는 경쟁 배우들의 반응과 돌발 상황이 큰 웃음을 안겨줬으며, 드라마와 버라이어티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14일(수) 방송된 <내일은 시구왕>(연출: 이영준)은 방송 이후 출연자들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내렸으며, 특히 시구왕을 차지한 우주소년 성소의 '공중 360도 회전 시구' 영상은 하루 만에 75만 뷰를 넘기도 했다. <내일은 시구왕>은 '시구'라는 독특한 스포츠 소재를 바탕으로 신수지, 전효성, 틴탑, 이은결, 양정원, 다이아 채연 등 다양한 분야의 출연자들이 시구왕이 되기 위한 역대급 시구를 선보여 풍부한 볼거리와 웃음을 선사했다.

부서탐방-전략기획팀

“플랫폼/콘텐츠/인사/인프라... SBS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과제 풀어간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무슨 일을 하는지?

방송산업의 구조가 급변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SBS를 포함한 지상파 경영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또 가구시청률이 곧 화제성과 수익성을 의미하던 틀이 깨지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중장기 성장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SBS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플랫폼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어떤 콘텐츠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어떤 인사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어떤 인프라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수많은 숙제를 안게 됐다. 미래전략실 전략기획팀은 SBS그룹이 새로이 안게 된 이런 숙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라는 미션을 받고 만들어진 부서다.

담당이 세 명이나 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미래성장전략 담당(황선복), 인사전략 담당(김기현), 인프라전략 담당(현준철) 이렇게 세 명의 보직 담당이 있다. 미래성장전략 담당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콘텐츠 포트폴리오 재구성, 플랫폼 강화 등 SBS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인사전략 담당은 SBS 성장을 위해 인사제도 및 조직개편 전반에 대한 혁신을 고민할 것이다. 인프라전략 담당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방송시설 구축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인프라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이다.

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 같다.

사내 모든 부서, 그리고 계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당면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가 가진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공유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활동했던 S-TF는 우리 SBS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시청자 이익', 'SBS의 생존과 발전', '도전정신'을 꼽았다. 우리의 자신 있는 도전이 SBS를 성장시키고 시청자 이익을 가져온



왼쪽부터 현준철 담당, 이재영, 김상한 선임매니저, 박유선, 박천규, 황선복 담당, 김기현 담당, 박기홍 팀장

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전략기획팀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사원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변화를 향한 몸짓이 중요하다. 미래전략실 전략기획팀은 “SBS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동료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모비딕’, 누적 조회수 3,000만 뷰 돌파하며 온라인에 성공적 안착!



지난 6월 20일 론칭한 온라인 전용브랜드 ‘모비딕’이 불과 3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3,000만 뷰를 돌파하며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모비딕’은 <양세형의 숏터뷰>, <IOI의 괴담시티>, <경리단길 홍사장>, <한 곡만 줍쇼>, <쫄개라>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화제의 인물과 3~4분 만에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과격적인 형식의 <양세형의 숏터뷰>는 이미 누적 조회수 1,100만 뷰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표창원 편’, ‘일리네어 편’ 등이 단일 클립으로 각각 140만, 19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시청자의 뜨거운 반응 속에 명실상부한 ‘모비딕’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사연을 보낸 시청자에게 작곡가 조커와 정상급 가수가 찾아가 라이브를 들려주는 <쫄개라> 김태우 편은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인과 고무신’이라는 주제, 온라인에 최적화된 간결한 편집으로 큰 화제를 낳으며 페이스북에서만 단일 클립 120만, 플랫폼 통합 170만 뷰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IOI의 괴담시티>, <경리단길 홍사장>, <한 곡만 줍쇼> 등의 프로그램들이 각각 단일 클립 100만 뷰 콘텐츠를 배출하며 모바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모바일사업팀은 “온라인 시청자의 관심을 기반으로 푸드/뮤직(아이돌)/뷰티/유머 등 분야 별 채널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팀이 분야 별 유닛 체제로 개편했다. 관심사 별 채널과 구독자를 바탕으로 ‘광고/제휴’ 영업을 전개함은 물론, O2O 비즈니스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콘서트 <힘찬 합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콘서트 <힘찬 합성>이 9월 7일(수) 저녁 7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됐다.

SBS가 주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콘서트에는

방탄소년단, 블락비, 빅스, B.A.P, 비투비, 장미여관, 울랄라세션, AOA, 마마무, 레드벨벳, 스피카, 소나무, 오마이걸, 크나큰, NCT 127 등 대한민국 최정상 K-POP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열기를 확산시켰다.

또한 이 자리에서 ‘챔피언은 바로 너야’, ‘어메이징 코리아’, ‘기적을 만들어 봐’ 등 ‘대한민국 국민 응원가 공모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응원가 7곡이 최초로 공개됐다. 국민들의 직접 참여로 완성된 국민 응원가는 윤일상, 주영훈, 뮤지, UN빌리지 등 최고의 프로듀서들이 함께했다.

<힘찬 합성>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500일인 9월 27일(화) 오후 5시 50분에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한센인 인권 유린 다룬 <그것이> ‘이달의 PD상’ 수상



왼쪽부터 강성경 스크립터, 김동민 조연출, 정문명 작가, 이큰별 PD, 유진훈 PD

<그것이 알고 싶다> ‘열네 개 유리병의 증언-나는 왜 태어나지 못 했나’ 편(연출: 이큰별)이 한국PD연합회가 시상하는 ‘제197회 이달의 PD상’(2016년 7월 방송분)을 수상했다.

TV 시사·교양부문 수상작인 <그것이 알고 싶다> ‘열네 개 유리병의 증언- 나는 왜 태어나지

못 했나’편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던 한센인들과,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당해야 했던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조명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센인에게 낙태와 정관수술을 강요하고 끊임없이 격리시켜왔다. 심사위원들은 제작진이 두 달 동안 200명의 취재원과 접촉하며 인권 유린의 실태를 끈질기게 취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컬투쇼> 사연으로 만든 영화, 단편영화제 최우수상



<두시탈출 컬투쇼>가 제작한 영화 ‘돌고 돌고 돌고’가 ‘제10회 대단한 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인 ‘금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연출: 김찬웅, 이세훈)는 청취자 사연을 바탕으로 ‘단편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돌고 돌고 돌고’는 <두시탈출 컬투쇼> 사연 중 운전이 좋아하는 어머니가 중고차를 구입해 운전하다 차가 멈추지 않아 생긴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각색한 영화다. 우문기 감독이 각색 등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배우 오정세와 박지영, 지수가 출연했다.

‘돌고 돌고 돌고’는 오는 11월 14일 SBS 파워FM 20주년 기념일을 기점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며, 추후 해외 단편 영화제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SBS 플러스 최대 한류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SBS플러스와 부산시는 세계 최대 한류축제인 ‘201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하 BOF)을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드주경기장, 벡스코 등 부산 일원에서 개최한다.

BOF는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한류 관

광객들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축제로, 부산의 문화, 관광 인프라와 SBS플러스의 최신 한류 콘텐츠가 만난 융복합 축제이다.

10월 1일(토) 오후 5시 20분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원아시아 개막공연’에는 썬스키스, 싸이, 소녀시대, 씨엔블루, 방탄소년단, 에이핑크, 걸스데이 등이 출연하며 당일 5시 50분부터 S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폐막공연인 ‘원아시아드림콘서트’는 10월 23일(일) 오후 6시에 열리며 엑소, 샤이니, 방탄소년단, AOA, 트와이스, 여자친구 등이 출연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한류스타 팬미팅, K-POP 콘서트, 한중합작 프로그램인 <더 콜라보레이션>의 파이널 무대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며, 원아시아 문화컨퍼런스, <런닝맨> 체험 프로그램, 원아시아 뮤직플랫폼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노래 나올 때 멘트하면 안 된다? 된다!! 〈DJ 봄의 드라이빙 클럽〉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금 오후 02:05-04:00



노래 한 곡을 듣는다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들던 시절이 있었다. 인터넷 검색 창에 제목만 쳐도 듣고 싶은 음악이 각종 버전으로 줄줄이 나오는 요즘과는 달리, 노래 한 곡 들으려면 음반 가게에 가서 듣고 싶은 노래가 들어있는 음반을 사거나, 길거리에서 파는 '짜퐁' 음반을 사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뿐이었다.

음반을 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카세트테이프에 녹음을 하기도 했다. 어렵사리 녹음을 시작했는

데 전주와 함께 DJ가 제목 소개라도 하는 날이면 한숨을 쉬며 스톱 버튼을 눌러야만 했다. 그 때의 기억들 때문인지 노래가 나올 때 멘트를 하는 건 라디오의 오랜 금기사항이었다. 대부분의 DJ, 작가, PD들은 노래와 멘트가 함께 나가는 걸 꺼린다.

금기가 깨질 때 사람들은 죄책감과 함께 짜릿함을 느끼기도 한다. 〈DJ봄의 드라이빙 클럽〉은 라디오의 오랜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내 노래가 나가고 노래가 나가는 내내 DJ가 멘트를 한다.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노래와 관계없는 멘트를 하기도 한다. 노래 가사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있다. '너는 누구야?'라는 가사가 나오면 '봄이에요'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슬려야 한다. '노래를 듣고 싶는데 왜 자꾸 끼어들까?'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재능이란 때로는 모든 걸 극복해버린다. DJ 봄이 가진 재능이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버린다. 듣고 있으면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하고 파안대소하기도 한다. 별 재밌는 말을 하지도 않는데 재미있다. 재능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그 뾰족함이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주머니에 숨어있던 봄이 재미 대폭발, 웃음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 라디오센터 라디오1CP 소속 이승훈 PD

공연 · 전시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입힌 김광석의 노래 창작 뮤지컬 〈그날들〉

• 일시 8월 25일(목) ~ 11월 3일(목) •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 등 고(故) 김광석이 불렀던 주옥같은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충무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그날들〉은 2013 초연 당시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 '제19회 한국뮤지컬대상' 등 각종 시상식을 휩쓸며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 주류를 이루는

공연계에서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새 지평을 열었다. 지난해 재연까지 객석 점유율 96%, 총 관객 25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막내딸 하나와 그녀를 경호하던 대석이 사라진다. 경호과장 정학은 갑자기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던 중 20년 전 '그날'을 떠올린다. 신입 경호원으로 첫 임무를 맡았던 정학과 그의 동기 무영은 한중수교 기념행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자를 경호했지만, 그녀와 무영이 갑자기 사라진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20년의 세월을 그린 작품은 조금씩 '그날'의 비밀을 벗겨간다.

감각적인 연출과 탄탄한 스토리, 12인조 오케스트라로 과감하게 편곡한 음악, 애크러 배틱과 무술을 넘나드는 화려한 안무는 역대 주크박스 뮤지컬 중 가장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준다. 다채롭고 디테일하게 구성된 무대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올해로 삼연을 맞은 〈그날들〉은 초연부터 작품을 함께한 원년 멤버와 새롭게 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신예 배우들이 역대 최고의 앙상블을 선보이고 있다.

원칙주의자 정학 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준상과 오만석, 그리고 실력파 배우 이견명과 민영기가 맡았다. 여유와 위트를 지닌 자유로운 영혼인 무영 역은 한류스타 차창욱과 FT아일랜드 이흥기, 그리고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쌓고 있는 오종혁이 맡았다.

사우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와 함께한 아주 특별한 휴가

-아나운서팀 김주우



작년에 〈희망 TV SBS〉를 진행하면서 소개했던 아프리카 아이들의 많은 사례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느낄 수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 7월, 매우 반가운 제안이 들어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MC로서 아프리카에서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눈물보다 웃음을 함께 나누는 기조도 새롭고 흥미로웠다. 그렇게 나는

GLP(Green Light Project)의 일환으로 동행하게 된 기아차 직원 25명과 아프리카 말라위로 떠나게 됐다.

비행기로 꼬박 하루 걸려 도착한 아프리카의 최빈국 말라위. 우리는 수도인 릴롱게에 있는 기아 GLP 스쿨을 찾았다. 학교로 가는 길은 허리에 힘을 바짝 주고 있어야 할 정도로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였다. 이 길을 매일 맨발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의 발에는 흙과 모래가 각질처럼 두껍게 굳어있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빈민촌의 풍경이었는데, 도저히 집이라고 볼 수 없는 허술한 구조물에 조악한 살림살이를 갖다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여럿 보였다. 우리가 탄 차가 일으키는 흙먼지를 다 뒤집어쓰면서도 손을 흔들며 쫓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무거운 마음으로 GLP 스쿨에 도착하자 학생들부터 동네 주민까지 우르르 몰려들어 우리를 맞아줬다. 나는 여태껏 그렇게 맑고 초롱초롱한 눈을 본 적이 없다. 그 수많은 눈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보고 반겨주니 왠지 이곳 아이들은 주눅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학교를 둘러보니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꽤 많았다. 우리는 조를 나눠 화단 조성 작업부터 담장 쌓기, 보도블록 깔기, 페인트칠까지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다. 또 자동차 정비, 캘리그래피, 사진, 합창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새로운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면서 금세 아이들과 친해졌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피부색과 환경만 다를 뿐 저마다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건 세계 어느 곳의 아이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봉사 일정의 마지막 날, GLP 스쿨의 첫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생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합창이 교정에 울려 퍼질 때에는 그동안 쌓인 정 때문인지 코끝이 시큰거렸다.

비록 올여름 휴가를 온전히 반납하고 떠난 봉사활동이었지만, 그 어떤 휴가보다도 값진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한 'Oh, happy day'의 가사처럼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이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환경 때문에 사그라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